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평창

2017년 5월 20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 19.(금) 오후 17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5. 19(금) 17:00	담당부서	정책기획팀
담당과장	장금영 과장 (044-203-4610)	담 당 자	임경숙 사무관 (044-203-4615)

부산진해,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성과평가 1, 2위 차지

- 제9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, 경제자유구역 2016년 성과평가 결과 확정 -

□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**부산진해가 1위, 인천이 2위, 대구경북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공동 3위**를 각각 차지했다.

○ 부산진해는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추진 분야에서, 인천은 조직운영, 기업지원, 정주환경 분야에서 각각 최고점을 획득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5. 19. **제9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**(위원장: 산업통상자원부장관)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「**경제자유구역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(안)**」을 심의·의결했다.

□ **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제도는 2010년에 도입**되어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.

○ **민간전문가** 1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, 현장점검, 종합평가 등으로 진행하며,

○ 경자청의 조직운영, 개발사업추진, 투자유치, 기업지원, 정주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7개 경자청의 순위를 매김

□ 2016년 경제자유구역 **개발률*은 구조조정**(3개 지구)과 **개발노력**에 힘입어 **66.7%**로 2015년(54.2%) 대비 **12.5%p 상승**한 것으로 평가됐다.

* 개발률 : 전체 지정면적 대비 '실시계획 승인후 개발 진행중이거나 개발완료된 면적' 비중

○ 단위지구(90개)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**최하위 등급을 받은 단위지구**(6개)에 대해서는 **'17년 기반시설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**하고 **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는 지정해제 대상**이 됐다.

* 최하위 등급지구 : (광양만권) 광양복합업무단지, 덕천에코시티, (부산진해) 문화지구, (충북) 충주에코폴리스, (동해안권)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, 망상사계절명품해양복합관광지구

□ 2016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실적은 **외국인 투자유치가 급증하였고 국내 투자유치는 소폭 증가**했다.

○ 경제자유구역 내 연간 **외국인 직접투자금액**(신고기준)은 2015년(14.56억 달러)보다 **53% 증가한 22.29억 달러**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10%를 차지했다.

○ 반면, 2016년도 국내기업 투자금액은 3.06조원으로 2015년(2.98조원) 대비 2.7%p 증가에 그쳤다.

○ 개발진척과 투자확대에 따라 2016년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**고용인원**은 2015년(115,305명) 대비 **9.7%p 증가한 총 12만6천여명**이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평가결과를 **국고 차등지원 등 성과급(인센티브)**에 반영하고 있으며, **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**에 활용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임경숙 사무관(☎ 044-203-4615, 010-2729-098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